

대~한민국 신화는 계속된다



■ 아드보카트호, 토고전 수능...내일 세네갈과 평가전

■ 월드컵 소식

안정환 원톱 발진

‘아프리카 상대 마지막 예방주사’

아드보카트 감독은 2006독일 월드컵축구대회 본선 G조 첫 상대인 토고의 ‘맞춤상대’ 세네갈을 상대로 2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대표팀 소집훈련을 중간점검하는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세네갈 평가전은 지난 14일 시작된 대표팀 소집훈련의 중간점검과 토고의 가상상대를 통해 아드보카트호의 맞춤형 전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이번 세네갈전은 아드보카트호의 베스트11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해외파와 치열하게 ‘주전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파 태극전사들이 아드보카트 감독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부상 박지성 ‘대체카드’...‘해결사’ 특명

이을용·김남일 콤비 수비형 미드필더

◇세네갈은 토고의 ‘맞춤상대’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3월 독일월드컵 본선진출국인 앙골라를 상대로 평가전을 펼쳐 1-0 승리를 거두면서 아프리카 ‘예방주사’를 확실하게 맞았다.

아드보카트호의 두번째 아프리카 상대인 세네갈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로 한국(29위)보다 한 계단 앞설 뿐 아니라 비록 토고에 밀려 본선진출에 실패했지만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집트, 튀니지에 이어 아프리카 FIFA 랭킹 ‘톱5’를 지키는 강호여서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이번 평가전에 특급 공격수 엘 지디 디우프(리버풀)와 앙리 카마라(위건) 등 세계적 스타들이 빠진 게 아쉽지만 토고와 월드컵 예선에서 골맛을 봤던 마마두 니앙(마르세유)을 비롯해 15명이나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점에서 토고의 맞춤상대로 최적이라는 평가다.

태극전사들 주전경쟁 치열할 듯

◇지성카드 ‘빠진 중원 힐빌라’

공격 선봉에는 안정환(위스부르크)이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환은 지난 14일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담금질을 시작한 이후 한 번의 열외도 없이 풀타임 훈련을 소화했고 자체 연습 경기에서 두 골을 뽑아내 골 감각을 끌어올렸다.

공격형 미드필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아드보카트호에서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볼 배급 뿐 아니라 새도 스트라이커로서 직접 ‘골 해결사’ 역할까지 해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부상재활 중인 박지성의 세네갈전 투입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아드보카트 감독이 박지성 ‘대체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지 역시 이번 평가전에서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일단 김두현(성남)이 박지성을 대신

해 태극호의 경기조율을 맡을 공산이 크다. 김두현은 재치있고 정확한 패스연결 능력에 폭발적인 중거리포까지 겸비하고 있어 박지성을 대체할 최상의 카드로 손꼽힌다.

김두현의 뒤를 받쳐줄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과 김남일(수원) 콤비가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젊은피’ 이호(울산)와 공격형 미드필더인 백지훈(FC서울)에게도 교체출전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아드보카트호 삼삼 불패(3승1무)

아드보카트 감독은 한국 사령탑 부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4차례 평가전에서 3승1무의 무패행진을 거듭했다.

아드보카트 감독 데뷔전이었던 지난해 10월12일 이란전에서 2-0으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스웨덴(2-2무), 세르비아-몬테네그로(2-0승), 앙골라(1-0승) 등 4경기 연속 무패행진(3승1무)을 벌이면서 ‘삼삼 불패’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4경기에서 뽑아낸 7골 중 4골은 수비수가, 3골은 공격수가 뽑아내 공격수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세네갈, FIFA 랭킹 28위

◇‘아드보 팀’ 재현될까

아드보카트 감독 부임 이후 달라진 태극전사들의 모습은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는 경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란전에서는 조원희(수원)가 59초만에 골 맛을 봤고, 스웨덴전과 세르비아-몬테네그로전에서 각각 최진철(전북)과 안정환이 전반 7분과 전반 4분에 선제골을 넣었다.

이후 올해 초 치른 해외전지훈련에서도 멕시코를 상대로 이



〈안정환〉

“잉글랜드 루니 첫 경기 출전 가능성”

‘중가’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애대우고 있는 웨인 루니(21·맨체스터 유나이티드·사진)가 6월10일 밤(이하 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파라과이간 2006 독일월드컵 B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 뛸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타블로이드판 대중일간지 ‘더 선’은 21일 이른바 ‘중가’가 부러져 6주간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루니의 부상 회복 속도가 잉글랜드 대표팀 스태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 파라과이와 치를 첫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잉글랜드 대표팀 스태프의 말을 인용해 “대표팀 캠프 안에서는 루니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전했다.

루니를 최종 엔트리에 포함시킨 스벤 고란 에릭손 잉글랜드 감독은 앞서 6월21일 쾰른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3차전인 스웨덴과 경기에 루니를 출전시키겠다는 복안을 드러냈었다. 루니의 월드컵 조별리그 출전 여부는 오는 25일께 나오는 정밀촬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16강 진출엔 보너스 6천만원

이란이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시 선수들에게 보너스로 5만유로(한화 약 6천6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란 축구협회 모하메드 다드칸 회장은 20일 “우리 선수들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21일 IS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20일 훈련을 시작했으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메흐디 마다바키(함부르크), 알리 카리미(바이에른 뮌헨), 바히드 하세미안(하노버), 페레이둔 잔디(카이저슬라우테른) 등 해외파 4명은 이날 오전 이란 테헤란 시내의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멕시코, 포르투갈, 앙골라와 한 조에 속해있는 이란은 25일(이하 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떠나, 28일 크로아티아, 31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앙골라, 세번째로 독일 입성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해 사상 첫 월드컵 본선진출에 성공한 앙골라가 32개 본선 진출국 중 3번째로 독일에 입성했다.

포르투갈, 멕시코, 이란과 함께 월드컵 본선 D조에 속한 앙골라는 21일(한국시간) 독일 월드컵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독일 하노버 북부의 켈레에 도착했다.

월드컵 개막을 3주 앞두고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전지훈련을 해온 앙골라는 이날 하노버 공항을 통해 입국해 토고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3번째로 독일에 들어온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됐다.